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김이우 바르나바



성인명: 김이우 바르나바 (金履禹 Barnabas)
신분: 중인, 순교자
활동연도: ?-1801년

김이우(金履禹) 바르나바는 한양 명례방의 유명한 역관 집안에서 서자(庶子)로 태어났다. 1794년 말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한 뒤, 김 바르나바는 아우 김 마태오와 함께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였고, 홍필주 필립보의 집으로 가서 주 야고보 신부를 만났다. 그리고 정인혁 타대오, 최필제 베드로 등 몇몇 교우들과 함께 자주 기도 모임을 하거나 교리를 강습하였다.

김 바르나바는 주 야고보 신부가 박해의 위협 때문에 피신해야 했을 때, 자신의 집을 피신처로 제공하고 그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주 야고보 신부가 설립한 평신도 단체 '명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800년 주 야고보 신부가 다시 한번 자신의 집을 방문하여 미사를 집전하게 되었을 때는 미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기도 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뒤, 김 바르나바는 아우 김 마태오와 함께 체포되어 포도청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곳에서 김 바르나바는 엄한 문초와 형벌을 받으면서 배교를 강요당했는데, 특히 박해자들은 그에게 그동안의 행적을 무섭게 추궁하였다. 그의 집이 신자들의 집회 장소였고, 그가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숨겨준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김이우 바르나바는 아무것도 발설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의 형벌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 냈다. 그러나 형벌을 끝까지 견디어내지 못하고 결국 포도청에서 장사(杖死)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01년 음력 5월 경이었다.

복 음 록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여기요 들려요

얼마나 잘
알아서 해주실까만은

얼마나 잘
알아서 들어 주실까만은

못내 걱정이 돼서
하늘에 외치지

"여보세요. 거기 있어요.
잘 들려요."

"그래그래,
내가 보고 듣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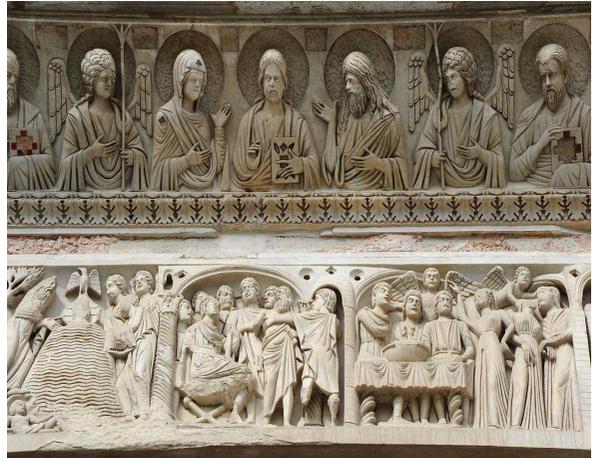
상화이야기

세례자 요한 세례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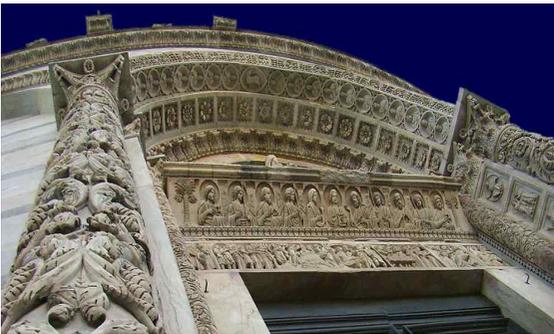


들어가는 문의 양쪽 기둥은 고전적인 모티브로 장식된 기둥이 보이되, 중앙 린텔부분에는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하단에는 세례자 요한의 생애가, 그리고 상단 중앙에는 한 손을 들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이를 보필하는 성모님과 세례자 요한 및 다른 성인들이 조각되어 있다.

지난주에 보았던 피사 주교좌 성당 앞에 있는 세례자 요한 세례당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세례당 (높이 54.86m, 넓이 34.13m)으로, 1152년에 건축이 시작되어 1363년에 완성되었다. 이런 이유로 성당의 겉면을 보면, 맨 아래층은 아직은 중세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의 동그란 아치로 장식되었으나, 중간층부터는 뾰족한 첨탑의 고딕 양식으로 장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부도를 보면, 하단의 맨 좌측부터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사도 요한이, 그리고 헤로데에게 잡혀 감옥에 갇히는 모습과 참수되는 모습을 조각한 장면 등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다소 중세적으로 조각된 입구를 지나 내부에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양식의 내부와 조각작품들을 볼 수 있다.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엘리시넷)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6주일: 신봉대 오정형 신부

◆ 교구장 동정

- 청룡오리정(해병2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9월 30일(주일)

-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때·곳: 10월 1일(월) 15:00,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

때·곳: 10월 1일(월) 18:30, 전쟁기념관

“군 복음회, 변함없는 열정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기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